" The Koren Daily News. Scoul, Korea. Friday, July 30th, 1926.

A CHINESE RULER RUNS

AWAY Py RAYNA RAPHAELSON He knew his own body-guard of 3,000 men (more than a thousand of whom

were quartered in his palace grounds) could not hold cut against the 20,000 Nationalists inside the city. So he came to a decision. He gave orders that there was to be no fighting. Whoever came was to be

admitted peaceably. Then he dismissed his informer and disappeared into the The Kuominchun had completed their encircling maneuver. The district was thoroughly covered. All exit streets and lanes weas guarded. Then a select troop marched to Tuan's main gate. They entered, ostensibjy to bring a

message from the local commander, General Lu Chung-lin. But Tuan was

not to be found. TUAN_DEPARTS Early in the evening of April 9 intimate friends of Marshal Tuan Chijui were somewhat astonished to have the old man call upon them. They were still further astonished when, with true Chinese courtesy, They came cut into the entrance courts to greet him and fourd he had come in a hired and none too clean ricksha instead of in his own big motor car. Quietly the old marshal told of the change in his political fortunes.

63分号では11年

蹴

柳鮮日朔葵 樹支局白

日報職州支局

の分を記

两山 留 。

個月電水刑

(長春) 에서 곡물 무역상을 하는데봉조(李屬朝)(로))는 그담배가가에서 담배를 사지근다배가가에서 담배를 사지는 이 말라면 등 다음을 무역하다 당장에 즉사케닭 이 대로인지 갓다는데 먹었다.

紀のかりを日野

が命横死む

拾桃競技中의 慘劇 질피 십삼명은 겨우소생하였 나 나마지다셨당은 그만죽었 더라(복장면보)

一号亂

대위비리고전해있는화약교한 물 천소식한후 오랜밀시장에 시 경 의 한 재 아 자

重輕傷者도多數

장명령으로바다에

争銃殺害當む

長春의

貿易商

범인파원인은전연몰라

진不甘む에서

詐欺横領が

が込通告裏面や如何 **메도커된이때**

少女會時系解散命令

理由

一綱領及幹部不穩

突然急死

二門人な母野小早島地方か正

再組織或凸叶佐解散

愚している。 보던사용증에 경암소녀회(靈岩 岩少女問題) 을조지하고그다일 보던사용증에 경암소녀회(靈岩 岩少女問題) 을조지하고그다일 을 해오드바 이번에도또해산명 하 아무일에 당다경찰당국에서 동회 로 당디일반인사는 당국악무리 하당되 『강당과간부를개 학압박을 크게 비난한다더라 하되 『강당과간부가크개불론하다』 하기해문에강당과간부를개 학압박을 크게 비난한다더라 하되 『강당과간부를개 보고 하기해문에강당과간부를개 보고 하는 기계문에강당과간부를개 보고 하는 기계문에강당과간부를개 보고 하는 기계문에강당과간부를개 보고 하는 기계문에강당과간부를개 보고 하는 기계문에강당과간부를 기계문에 강당과 기계문에 강당되고 기계문에 가입되고 기

消夏探勝團申請期

((京城驛集合은午後十

時間

其他詳細
トタ
刊發表)

一日正午

主催

() 사라 () 라마 () 라마

生死不明百餘 과 기보===장의도털원군(鐵原郡) 이 면항장을 불건한다는의미로 에 면항장을 불건한다는의미로 행하면 이 원장하여 온신진도에 함하면서 대사기를 행한사실으로 발각된그당시에 투자 보도한비 보장에 오십원자리 타를 나라낸바 지난음력삼 전한국장리(中和郡唐井而後長里) 김한국(金銭國)(三)의도부리일 사) 플거리사기회영의 부하 평양부교구당 수 요롱거리사기회영의 부하 평양부교구당 수 요롱거리 고소를 데 기하였다 더라

初潟縣地方の

兩少年壯學

이번대홍수의참해

死體發見二十名

子早叶对牙(大邱府大和町)智仙 徒步競走出發

斗量組合의軋轢 의 지점이도하야오는 말을 일을 아침에 부산을 떠나 신의주(新義州) 가지마라손를 들한다는 바삐땅을

짠조합을절립하겠다고

전 당조합(斗量組合)의거기상준명 등하였스나 질국 동일오후열시 다 등조합(斗量組合)의거기상준명 등하였스나 질국 동일오후열시 다 는것이 일반의시비를 사게되어 이웃사람의말을 들으면 권기리자 천상하(千象河)에게 해고되어 당조합이 박조합의 주어바련다는데그 다는데 이 에대하야 강준명이라 이웃사람의말을 들으면 권기리 다는데 이 에대하야 강준명이라 이로 그리히오구를 하아오는증 다 당시구 마상 방급반조합원을 모집층이 가 가련하기 확이업다하며그병 지리되고(평양) 肥料ハユはか

妻子絞殺後

投身自殺

생활七으로생긴 東京府下慘劇

大阪州調査依賴 大阪州調査依頼 지난이십달일 오권투시장에 동 정부하 중야정집색(東京府下中 정부하 중야정집색(東京府下中 시과자상하는 대총명 (大線明) (교존)의 생활난이로 자긔커『노 부교(量)와 장남정(正)(ლ)과 장 부교(量)와 장남정(正)(ლ)과 장

하는 이김의사이대 (수원)

다(동생)

警察的呼訴 안해를만타한 日 せの はいかかりになっている。 しゅう(近線青年線合金)のメンジョウ(近線素発金)のメンジョウは(近線素発金)のメンジョウルので(近線素発金)のようという。 の원도 삼력군상장면(江原道三 時郡上長面) 디바귀근동포를구 別하기위하야 각단데에서 희생 二陟饑饉 救濟義捐

圓平工산後的 나중에야今우중알고서

大學生의夫婦パ 소녀들식혀사 位的人阿言印不動车的

犯人男女三名全部逮捕

교 등이 만라는소문이 날도돌아에게 등이 만라는소문이 날도돌아에게 등이 만라는소문이 날도돌아에게 하였다. 교육 전체하고 무례한행동 하여 한 한 여러가지로 불리한 이 만호롱이 한 우수의 환자에게 하여 한 한 여러가지로 불리한 에 반라는소문이 날도돌아에게

可出發

日齋禮 探勝團員出發や今夜 金香明일재金州七川出日

組合應援

0

五十圓外日出合合

警官亞道路彷徨

古型不動의일大道外足 長野縣民擾續報

東京軍對上海軍朝鮮團對高麗俱

中央基督教青年會◆朝鮮日報社 徽文運動場の 旅館에서宿泊拒絕 兩天順延

午後三時早昌

詐欺取財罪呈告訴